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서 현 진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정치인의 활동유형분석

2010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최 은 영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정치인의 활동유형분석

서 현 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최 은 영

인 준 서

최은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정치인의 활동 유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국민 대다수는 정치를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거나 정치에 대해 냉소하는 등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해 부정적이다. 중고등학생들 또한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며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고등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어 향후 정치에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시민으로 자랄 가능성이 크며, 그것은 한국 정치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치인에 대한 객관적인 학교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전체 국민들과 중고등학생들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관심도와 신뢰도가 낮은 것은 현실 정치인의 잘못된 형태와 이에 대한 집중적인 언론 보도 등 여러 가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인 활동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데 이런 낮은 지식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듯 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인의 잘못된 행동이나 편향적인 활동이 언론의 집중적 보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부각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교과서에서 정치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과서 내에 정치인의 활동이 특정한 활동에 치우쳐져 제시된다면 그것은 학생들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을 특정 활동에 치중하여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7차 중고등학교 사회·정치교과서 삽화 속에 나타난 정치인-국회의원, 대통령-의 활동유형을 분류하고 분석해 보았는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원의 활동유형을 살펴본 결과, 국회의원의 활동 중 원내활동에 관한 삽화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국회의원의 활동에 해당하는 삽화 중 66.9%가 원내활동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학교 사회교과서와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에서 원내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0.0%, 88.9%였다. 따라서 그 외의 국회의원의 활동유형에 대한 제시에 소홀하다. 특히, 지역구활동의 경우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와 정치교과서에 지역구활동에 관한 삽화가 각각 5.9%, 1.9%의 비중으로 실려 있었으며 나머지 교과서에는 지역구활동에 관한 삽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둘째, 대통령의 활동유형을 살펴본 결과, 모든 사회과 교과서에서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에 확연히 치우쳐서 제시되고 있었다. 특히, 국민공통과정인 중학교 사회교과서와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삽화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활동만이 제시되고 있고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이 나타난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원의 활동유형 삽화는 전반적으로 원내활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에게 원내활동 외에 지역구 활동과 같은 원외활동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교과서에서 국회의원의 다양한 활동유형 삽화를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정한 활동에 과도하게 치우쳐서 제시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통령의 활동유형에 관한 삽화는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국민공통과정에서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활동에 관한 삽화가 국가원수에 과도하게 치우쳐 제시됨으로서 학생들에게 대통령을 국회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행정부수장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대통령을 국가의 대표로서의

이미지로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과서 삽화에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도 같이 제시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4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6
1. 중·고등학교 정치의식과 정치사회화	6
1) 중·고등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 경험적 연구	6
2)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	11
3) 정치교육과 교과서	13
4) 교과서 삽화의 교육적 효과	15
2. 정치인의 활동유형에 관한 연구	18
1) 국회의원의 활동	18
2) 대통령의 활동	23
III. 분석대상과 분석준거	28
1. 분석대상	28
1)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삽화	28
2)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활동	29
2. 분석준거	30
1) 정치인 활동에 대한 삽화구분 방법	31

2) 정치인 활동유형 구분 방법	33
IV. 주요 결과 및 논의	39
1. 정치인의 활동 삽화의 수	39
2. 정치인의 활동 유형별 분석	40
1) 국회의원의 활동유형별 분석	40
2) 대통령의 활동유형별 분석	52
V. 결론 및 제언	58
1. 분석 결과의 요약	58
2. 시사점 및 제언	60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III-1> 분석대상 사회교과서	28
<표 III-2> 국회의원의 역할유형	34
<표 III-3> 국회의원의 활동유형	34
<표 III-4> 국회의원의 활동	36
<표 III-5> 국회의원의 활동유형 분석틀	36
<표 III-6> 대통령의 활동유형	37
<표 III-7> 대통령의 활동유형분석틀	38
<표 IV-1> 정치인 활동 분석 가능한 삽화의 수	39
<표 IV-2> 국회의원의 활동유형별 삽화의 수	40
<표 IV-2-1> 국회의원의 활동유형별 삽화 비율 I	41
<표 IV-2-2> 국회의원의 활동유형별 삽화 비율 II	47
<표 IV-3> 대통령의 활동유형별 삽화 비율	52

그림 목차

<그림 III-1-가> 정치(대한) 63쪽 삽화	31
<그림 III-1-나> 정치(법문사) 72쪽 삽화	31
<그림 III-2-가> 정치(지학사) 85쪽 삽화	32
<그림 III-2-나> 정치(천재) 157쪽 삽화	32
<그림 III-3-가> 정치(대한) 80쪽 삽화	33
<그림 III-3-나> 정치(지학사) 28쪽 삽화	33
<그림 IV-1 > 국회의원의 활동유형 그래프 I	42
<그림 IV-2> 정치(천재) 146쪽 삽화	44
<그림 IV-3> 중3 사회(중앙) 30쪽 삽화	44
<그림 IV-4> 고1 사회(중앙) 216쪽 삽화	44
<그림 IV-5> 정치(대한) 63쪽 삽화	45
<그림 IV-6> 정치(지학사) 132쪽 삽화	45
<그림 IV-7> 정치(천재) 157쪽 삽화	46
<그림 IV-8> 국회의원의 활동유형 그래프 II	48
<그림 IV-9> 중3(금성) 23쪽 삽화	49
<그림 IV-10> 정치(대한) 94쪽 삽화	49
<그림 IV-11> 고1사회(대한) 195쪽 삽화	50
<그림 IV-12> 정치(지학) 81쪽 삽화	50
<그림 IV-13> 대통령의 활동유형 분석 그래프	5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 영역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동시에 복잡한 문제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거는 기대도 커져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 대다수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정치적 대안이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이런 기대는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결과 최근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높고 정치적 효능감이 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갤럽연구소에서 2008년 7월 28일부터 열흘간 전국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면접 조사)으로 한 ‘기관·단체 신뢰도 조사’ 결과 11개 기관·단체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각각 10위, 11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선진민주주의 국가는 물론 아시아 대만, 인도 등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국회에 대한 신뢰는 정부보다 더욱 낮은 수치이다.

일반적으로도 정치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 대다수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를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거나¹⁾ 정치를 냉소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다. 2009년 1월 12일 내일신문,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64.9%가 무당층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1) 2004년 사회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신문의 관심부분은 경제면, 정치면, 연예 스포츠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은 정치부분(45.5%)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와 20대는 각각 6.8%, 10.9% 만이 정치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정치에 관심이 높았고 나이가 어릴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은 낮았다.

반영하고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정치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감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 여러 연구를 보면 중·고등학생들 또한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며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이미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어 그들이 향후 정치에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시민으로 자라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인에 대한 객관적인 학교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기 정치적 태도와 시각 형성에 있어서 학교교육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인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전체 국민들과 중·고등학생들의 정치인에 대한 관심도와 신뢰도가 낮은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원인은 국회에서의 폭력사태나 비민주적인 정치활동 또는 선거 때만 시장을 찾는 대통령이 나 국회의원 후보들의 식상한 모습 등 정치인의 잘못된 행태에서 기인한다. 게다가 이갑윤(2005)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인 활동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데 이런 낮은 지식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듯 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인의 잘못된 행동이나 편향적인 활동이 언론의 집중적 보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부각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²⁾

그렇다면 과연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사회와 정치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정치인들은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을까?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당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만 치중하고

2) 예를 들면 2009년 1월과 7월 CNN 등 외신은 "한국 국회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2009년 말 AFP통신은 "한국에서 국회는 가장 준법의식이 낮은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망치로 국회 상임위원회 출입문을 부셨던 '해머 국회'를 또 다른 국회 폭력의 예로 보도했다.

있을까? 국회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을까? 국민의 여론 수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을까?

교과서 안의 삽화는 정치인의 이미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뿐 만 아니라 정치인의 활동에 관한 태도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교과서 삽화 속에서 정치인들의 폭력적인 모습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된 삽화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교과서 상의 정치인의 활동이 편향되게 제시될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선거운동, 원내활동, 원외활동 등 여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원내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원외활동과 같은 정치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제도권 안으로 투입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교과서 내에 국회의원의 활동이 선거운동과 같은 특정 활동에 치우쳐서 제시되어 있다면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학생들로 하여금 선거 외의 다양한 정치인의 활동에 대해 인식하는데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즉, 교과서 내에 국회의원의 활동이 특정한 활동에 치우쳐 제시된다면 학생들은 잘못된 지식을 습득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7차 중·고등학교 사회·정치 교과서 삽화 속에 나타난 정치인의 활동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교과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교육 자료이고, 특히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교과서의 비중이 매우 큰 현실을 감안할 때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는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삽화는 시각적인 효과가 크며, 무의식적으로 학생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강우철 교수는 삽화가 갖는 교육적인 위치를 ‘삽화는 문자 이외의 교과 내용이다. 삽화는 교과서 본문의 위치에서 떠나 훌륭한 자료의 기능, 내용의 기능을 제시하는 학습의 요소이다. 삽화는

이제 보충적인 위치를 벗어나 그 자체가 내용구실을 하는 주체성을 갖춘 셈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 속에 등장하는 정치인의 활동은 학생들에게 투영되어 정치, 정치인에 대한 전반적인 관념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가 정치인의 활동에 대해 고정적이고 편중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배우는 학생들이 정치인의 활동에 대해 잘못된 지식과 고정적 관념을 가지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정치교과서가 어떤 유형의 정치인의 활동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고, 정치인의 활동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삽화가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향후 사회의 주역이 될 중·고등학생들의 정치교육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교과서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육 자료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가 정치인 활동에 대해 고정적이고 편중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배우는 학생들이 정치인의 활동에 대해 고정적 관념을 가지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다.

현재 사회과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목까지 국민공통과정이며,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심화선택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치참여는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목표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정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심화선택 과목 중 하나인 정치를 선택하지 않

는 학생들의 정치교육은 국민공통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때 국민공통과정과 심화선택과목 간의 차이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사회교과서 정치교과서의 삽화 중 정치인-국회의원, 대통령-의 활동유형에 대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7차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제시된 삽화 속 정치인의 활동유형의 비중은 어떠한가?

정치인의 활동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정치인의 활동유형이 한 쪽에 편중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둘째, 정치인의 활동유형은 국민공통과정과 심화선택과정별 차이를 보이는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정치활동 자료 중에서 정치인임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므로 구분이 불분명한 자료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정치인의 참여활동을 국회의원은 4가지 참여유형으로, 대통령은 3가지 참여유형으로 나누어 분석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분류하는데 있어 연구자의 주관의 개입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검토

1. 중·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사회화

1) 중·고등학생의 정치의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

정치의식이란 정치에 대해 그 사람이 갖는 의식의 총체이다. 즉, 정치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 평가 태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극찬은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적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 행동을 결정하는 바탕으로 의견 판단 인상, 감각 등이 작용한다고 전제하고, 정치행동을 결정하는 정신작용을 정치의식이라고 보고 있다. 즉, 어떤 정치적 사상과 특정한 정치 제도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의식, 평가, 태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득규는 정치의식이란 정치일반 또는 특정한 정치문제에 대해 나타내는 정치행동의 정향으로서 정치적 사고와 그것으로부터 연유하는 행동양식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정치학 대사전에서는 '정치적 사상과 정치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인식, 태도, 평가의 총칭이며 정치행동의 선택으로 인도하는 의견, 판단, 인상, 감각 등의 정신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함의영은 정치의식을 정치인, 정치사상 또는 정치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는 인식, 평가, 태도를 총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윤무는 정치의식을 정치적 사상을 형성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이 어떠한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는 향후 한국 사회의 정치발전에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청소년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이후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부터 지역별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조사한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김옥희(1992)의 “대도시 고등학생들의 정치문화에 대한 조사연구”를 보면 고등학생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낮았고 정부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종렬(1997)의 “한국 중·고등학생의 정치의식의 성장과 변화“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이념적 가치에 대해서는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으나,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냉소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현실정치의 문제해결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절차적 원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로 인하여 학교 정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규열(1998)의 “고등학생들의 민주정치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원리와 운영원리에 대해 대체로 높은 인식수준을 가지고 있으나, 실천원리에 대한 인식부족과 정치인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강한 부정적 평가와 무조건적 불신이 특징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투표기피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20대, 30대 의 투표율 저조와 더불어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광웅·방은형(2001)의 『한국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형성요인』에서 청소년들은 정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치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주 매개체는 텔레비전, 부모, 학교, 교사, 친구 순서로 나타났다.

이은진(2002)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국회, 정부, 선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병욱(2003)의 “중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와 김윤자(2002)의 “중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중학생들의 정치조직과 기능에 대한 신뢰가 낮고 정치의식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낮게 나타났다.

최호택·류상일(2007)의 “대전지역 청소년의 정치의식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정치현실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의 48.5%가 60점 이하로 평가하였으며, 36.5%가 61점에서 70점 사이로 평가하였다. 대체적으로 정치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고등학생의 63.1%가 60점 이하로 평가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치인을 73.1%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꼽았다.

김종한(2007)의 “고등학생 학생들의 선거의식조사 연구: 부천시 고등학생 중심으로”에서는 학생들의 정치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으며, 가정에서의 정치적 대화도 자주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거관련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며 투표참여의지는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정치인들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이진아(2007)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회화 매체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정치에 대한 인식 및 평가에 대해서 중학교, 고등학생들 모두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학생들에 비해 고등학교 학생들이 조금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신뢰감에 있어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모두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에 비해 더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치에 대한 인식 및 평가에서는 사회과 수업과 가정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적 신뢰감에는 사회과 수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우(2005)의 “고등학생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의 정치교육환경 및 일반적 환경이 청소년의 정치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수업의 흥미도와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경우 국가 및 애향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학습회의와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이 높을수록 정치신뢰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김창언(2005)의 “청소년의 정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농촌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에서는 정치교과에 대한 흥미도와 교사의 수업방식이 청소년의 정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정치교과에 대한 흥미도가 높을수록 정치지식, 정치효능, 정치관심, 정치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백종태(2002)의 “고등학생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순천과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에서는 사회과 수업에 대한 관심도는 정치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영(2007)의 “부산지역 고등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과 수업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을수록,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정치의식을 보였다.

강광철(2007)의 “고등학생의 정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조사”에서는 1학년과 자연계 학생보다 인문계 학생의 정치의식이 높았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의 유형은 현재 복종형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육과정상 심화된 사회과목을 배울수록 그들의 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고정된 가정환경의 요인보다는 학교교육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발전할 때 이들의 정치의식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를 보면 중·고등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도 낮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불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회, 정부,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늘고 있고,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낮고 정치,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는 높다.

우리 사회에서 20대와 30대 젊은 세대³⁾의 정치 불신과 정치무관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고등학생의 정치의식에 대한 연구 결과로 볼 때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졸업 후 성인이 되어도 젊은 세대의 정치무관심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한국 정치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생들의 정치교육을 담당해야 할 학교는 입시위주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중·고등학생의 정치의식에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수업, 특히 사회과 수업이 정치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과 수업에 흥미도가 클수록 정치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의 정치의식을 함양하는데 학교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정치의식의 발달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을 통한 정치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1990년 후반연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현실 정치의 부정적인 상태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학교 정치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정치인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 중·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3) 배한동(2001)의 『한국대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어 낮은 정치참여로 연결 투표참여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

정치사회화란 인간이 성장해 감에 따라 정치생활과 관련된 가치체제, 신념, 태도 등을 체득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스턴(D. Easton)은 정치사회화란 사람들이 정치적 정향과 행태유형을 배우는 발전적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도슨(R. E. Dawson)은 정치사회화란 개인이 그의 특정한 정치적 정향-정치적 세계에 대한 지식, 감정, 평가 등-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정윤무는 정치의식의 형성과정을 정치적 사회화라고 정의하였다.

정치사회화는 초기 가족생활에서 시작되어 학교생활에서 이루어진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직업상 관계, 집단에의 자발적 참여, 미디어와의 접촉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도슨과 프리윗이 제시한 성인 이전 정치학습의 일반적인 양상을 보면 아동전기는 정치적 권위자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며, 정치나 정부의 개념은 인격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감소된다. 아동후기나 청년초기에서는 정치세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사실과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이시기에 추상적 개념과 이념 즉 사고를 갖게 되고 목적을 분석하는 능력도 갖게 되며 정당이나 선거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참여적인 기능도 발전하게 된다. 다시 말해, 성인 이전에 정치적 자아는 완전히 발달되며 인간의 기초적 애착과 그리고 정치세계에 관한 기초정향과 정치적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등이 모두 발달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정치사회화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학교는 가정, 동료집단, 대중매체 등과 함께 정치의식 형성의 주요동인 중 하나로 되어 있다. 학교의 환경이 청소년들의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또한 성격상 공공기관이므로 확실적인 통제를 하기 쉽다는 점에서 그럴 것이다.

정치의식 형성에 있어서 학교의 정치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는 청소년의 중요한 성장 시기에 지속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학교는 서로 다른 가정환경에서 사회화된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의도적이며 합리적인 사회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치사회화 매체이다. 학교는 의도적이고 계획된 교재를 매개로 교수학습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정치적 개념을 가르칠 뿐 아니라 학교의 분위기에서 습득된 무의도적인 경험에 의한 태도를 사회화한다.

의도적 정치사회화로서의 정치교육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정착,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알몬드(G. A. Almond)와 버바(S. Verba)도 정치의식의 형성에 있어 교육만큼 강력한 변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교육을 더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정치적 정보와 지식, 더 높은 정치적 현실에의 참여 효능감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논의에 더 많이 가담하고 능동적이라고 하였다.

이춘수(2003)는 “정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정치교육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정치적 지식이나 열정, 가치, 태도 등을 습득하게 되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제도적 교육이 가장 체계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나라 정치발전의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유석렬(1986)은 아동기에 학습된 정치적 정향은 그 이후에 학습된 정향보다 성인의 정치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아동기에 학습되어진 정치적 정향은 성장 후에 형성되는 정치적 행동보다 지속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중·고등학생 정치사회화는 학교교육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정치교육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시알라스는(B.

G. Massialas) 정치교육을 "정치체제의 기본 가치관과 규범을 구성원에게 내면화하는 과정 혹은 정치체제의 규범과 가치관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랑게벨트(W. Langeveld)는 "정치에 관한 연구와 정치과정의 참여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박용헌은 "한 국가가 그 생활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하고 정치과정의 참여에 필수적인 지식과 능력, 태도, 자신 등을 포함하는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적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박병석(1996)은 "정치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에서 정치교육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기본목표로 자유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수용하게끔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하면서 학교교육을 통해 정치교육을 구성하는 개별요소와 분야에 대한 지식전달에 힘써야한다고 주장한다.

3) 정치교육과 교과서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의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는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자이다. 그 중에서도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로서 교사의 교수와 학생의 학습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며, 수업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교수-학습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교육개발센터에서 출간된 교과서 활용의 극대화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는 교과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교과서는 많은 교사들에게 교수학습의 주요도구이다. 또한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하는 학습활동을 하는 시간은 75%, 그리고 교실 밖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의 90% 가량은 교과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서가 교수 학습 전반에 걸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

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승철, 2002)

교과서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지연, 1999)

-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이고 주된 학습 자료이다.
- 어느 한 사회나 국가의 교육 이념이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의 기본 정신에 알맞게 편찬된 학습 자료로서 학생용 도서이다.
-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으로 구성된 학생용 도서이다.
- 교육 과정을 근거로 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실 현장에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제시한 학습 자료이다.
- 교재의 가장 정형화된 형태로서,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일정한 원리에 따라 선정, 조직한 제재들의 유기적 구성물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교과서는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학습과정의 기본 바탕이 된다. 따라서 교과서는 학습자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 정보 등을 습득하여 여러 현상을 설명하여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교과서가 담고 있는 지식과 다양한 자료는 학교수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학습 자료이며, 학생들의 학습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매체이다. 그러므로 교과서 속에 반영된 지식, 가치는 학생들의 신념과 지식,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교과서 속에 정치교육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4) 교과서 삽화의 교육적 효과

(1) 삽화의 교육적 효과

삽화의 사전적 의미는 신문, 잡지, 서적 등의 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삽입하는 그림으로, 일반적으로 문장과 직접 연관이 있고 회화적 성격이 강한 것을 가리킨다. 교과서에서의 삽화도 문자와 더불어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이라는 뜻으로 교재의 내용이나 추상적인 사실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보충적인 설명의 구실을 하는 각종 사진, 그림, 지도, 문헌자료 등을 총칭하는 평면적인 시각자료이다. 이 때 삽화는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현되어 있는 삽화 자체뿐만 아니라 삽화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삽화설명문이나 소제목까지 포함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⁴⁾는 단순히 교과서의 분량을 늘리기 위하여 게재된 것이 아니라, 저자들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정·수록하여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삽화는 그것이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예견과 계획에 의하여 의도적이고 단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교과서의 삽화를 본문과 함께 학습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삽화가 본문에 대해서 단지 종적인 관계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보고 읽기에 편리하면서 생각하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삽화는 본문의 보완적 위치를 떠나 독립된 자료로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보충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삽화 자체가 내용구실을 하는 주체성을 갖는 것이다.

4) 수업에 활용될 삽화는 내용성, 가치와 신빙성, 정확성과 참신성, 능력과 발달성,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박천기, 1999)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삽화는 기본적으로 가르치고자하는 학습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업에 활용될 삽화자료는 교과 전문가에 의해 비판·정리되고 해석된 것으로 학습에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삽화는 내용적으로 정확하고 참신해야 하며, 능력과 발달 단계에 맞는 삽화가 선정·수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형태의 삽화를 일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선정·활용해야 한다.

삽화자료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유발하고 상상을 자극하는데 도움을 주며, 자료의 체계적인 이해와 전체적인 지각에 도움을 준다. 삽화의 적절한 삽입은 내용 혹은 자료의 구조적 지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⁵⁾ 왜냐하면 그림이나 사진은 사람의 설명으로 미치지 못하는 이미지를 주어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또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익숙해진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삽화 같은 시각자료가 주는 역할과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삽화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S. J. Samuel)도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삽화가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K. U. Smith는 삽화가 독자를 지각적으로 동기화시키며 읽을 것을 지각적으로 강화하고, 언어 자료의 의미를 강화하고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J. R. Levin & A. Lesgold의 연구에서는 학습에 있어서 내용과 맞는 삽화가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H. Levie & R. Lentz는 삽화의 효과에 관한 55개의 실험을 통해 삽화는 삽화로 표현되어 있는 교과내용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삽화가 교과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을 때 학습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5) 삽화의 기능에는 주의적 기능, 설명적 기능, 조직 기능, 이해 기능, 파지적 기능 등이 있다. 주의적 기능이란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을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의미한다. 즉, 학습 내용을 뒷받침해주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자극하고 주의집중력을 강화하여 수업을 순조롭게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설명적 기능이란 특정 내용을 시각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주로 내용을 보충하거나 설명 위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활용된다. 조직 기능이란 학습 내용에 일정한 구조와 일관성을 부여해주는 기능으로, 이 기능은 여러 핵심 정보들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학습 내용의 구조화를 도와준다. 학생들은 일련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삽화를 통해 사건의 전후 맥락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구조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 이해 기능이란 추상적인 개념이나 구절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기능으로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삽화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학습자가 이해하기 용이한 형태로 제시하여 준다. 파지적 기능은 삽화기억이 언어 기억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배경으로 학습 내용에 대한 기억을 돕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삽화로 표현함으로써 학습 내용에 대한 기억을 용이하게 한다.

삽화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째, 삽화를 통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둘째, 복잡한 내용 혹은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줌으로써 사람의 설명만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분명한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사실을 전달하는데도 효과적이다. 셋째, 삽화는 직관적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넷째, 구체적인 학습 자료를 통해 획득된 지식은 언어나 문장을 통하여 얻은 지식보다 훨씬 오래 지속된다. 따라서 지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이다. 다섯째, 삽화는 교과서에 직접 결합된 상태이므로 다른 학습 자료와는 달리 보관·관리·설치 등의 문제점이 없고, 특별한 장치나 기자재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는 학생 전부가 가지고 있으므로 동시학습과 더불어 개별 학습도 가능하게 한다. 여섯째, 사회과목을 지루한 암기과목으로 여기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삽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 사회교과서 정치영역에 관련된 삽화연구

사회교과서 정치영역에서 삽화에 관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최진(2008)은 시민단체 활동은 행위적 모습이기 때문에 글로써 서술된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는 삽화를 통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시민사회단체 활동 유형과 분야에 대해 분석하였다. 시민단체의 활동유형 가운데 시위가 중학교 사회교과서와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그 수치가 50%를 넘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 분야별로 보았을 때 사회적 이슈와 정치적 이슈는 비슷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실생활 이슈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시민 사회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사회 교과

서는 모든 과목에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활동 유형 삽화를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각각의 활동 유형의 삽화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수경(2007)은 교과서 전면에 드러나는 여러 지식 체계 외에도 삽화나 예화의 내용을 의도하지 않은 내용이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를 바탕으로 성별구분이 가능한 삽화는 학생들에게 암묵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고, 정치교과서 삽화 속에 성별에 따라 정치활동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치활동 관련 삽화 분석을 하였다. 삽화 속에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남성의 정치행위는 여성보다 주도적, 적극적 행위였다.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성불평등한 내용들의 수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 정치인의 활동에 관한 연구

정치인의 활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정치인의 활동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국회의원의 활동

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법을 제정하고 예산에 대해 심의하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활동을 수행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의회 내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의회 내에 활동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진 탓에 의회

외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의원의 역할유형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연구는 1970년대에 영국의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시어링의 연구이다. 시어링은 의원들이 다양한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분석한 결과, 입법을 우선시하는 정책입안형, 지역구민 봉사를 우선시하는 지역구의원형, 개인적 리더십 지위 향상을 우선하는 내각열망형, 의회의 내적 발전을 도모하는 의회형 4가지 유형을 제시한다.(윤종빈, 2004)

시어링의 연구를 기초로 한국에서 실시된 윤종빈의 연구(2004)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역할유형은 정책입안형, 지역구의원형, 직업정치인형, 의회형, 정당충성형으로 추출되었다. 시어링이 제시한 유형과 유사한 패턴으로 역할 유형이 추출되었으나 한국적 정치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정당충성형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이 연구에서 윤종빈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국회 내의 공식적인 의정활동과 국회 밖의 의정활동 특히, 지역구 활동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또한 윤종빈(2006)은 1990년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의정활동 평가는 크게 입법활동과 국정감시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하였다.

이달희(2006)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정당활동 등과 같은 정치활동, 상임위, 예결위, 국감 등 국정관련 의정활동, 법률안발의와 심의 등 입법관련활동, 지역구관련활동으로 나누고 있다. 이성로(2001)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원내활동과 원외활동으로 구분되는데, 원내활동은 본회의를 중심으로 한 활동과 국정감사, 위원회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임효정(2006)은 국회의 업무를 국정감사기능, 입법기능, 외교활동기능, 예산기능, 행정기능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 내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한은정(2007)의 연구에서는 정당활동을 국회 밖의 활동의 하나로 보고 국회의원의 활동을 국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정당의 대표자로서의 활동, 지

역 대표자로서의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조금씩 다르지만 종합해보면 국회의원의 활동은 크게 원내활동과 원외활동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활동은 원내활동에 비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 들어 지역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면서 지역구활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대표성의 개념을 의원과 선거구주민간의 정책입장의 일치라고 이해되었으나, 점차 대표자가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잘 감지하고 대응하려고 노력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접근으로 선거구민에 대한 의원의 책임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국회의원과 선거구민의 관계에 관한 연구(윤중빈, 2000)에 따르면 지역구활동에 대한 선거구민들의 기대와 만족은 국회의원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바라는 의원의 대표활동의 순위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이 지역구활동을 선택했다. 이것은 지역구활동이 의원들의 공천과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의 증거가 되고 있다. 미국, 영국 유권자의 경우에도 지역구민과의 지속적인 접촉이 입법활동보다 더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권력의 집중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제도적 장치의 모색이다. 그 중에서도 상향식 공천제도 및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은 정치에서 중앙당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킬 것이고 그에 따라 국회의원 개인의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의회가 갖는 행정부견제권한이 강력하지 못한 국가의 경우 국회의원의 지역구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지역구민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활동은 우리 정치과정에서 더욱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송광태(1991)는 지역구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구활동과 관련하여 지역구대표기능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였다. 대표기능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활동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의회정치를 활성화시키려면 의원이 활발하게 대표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의원의 대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지역구위원의 경우 지역구이익을 국가이익과 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면서, 특정지역구의 이익과 국가이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구 이익이 무시된 국가이익이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활동의 효과는 특정의원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지역구활동 그 자체가 활발한 대표기능의 수행을 의미하므로 그 효과는 의회제도의 차원으로까지 확산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으로부터 폭넓게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 이것은 국민과 정부 사이를 연결시키는 의회 자체의 정당성확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의회제도에 대한 국민의 정당성부여는 민주정치실현을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종빈(2000)은 한국 국회의원의 지역구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은 더 이상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여전히 갈등 속에 있으며 시민사회에 의한 정치적 대표성이 충분히 실현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의한 지역구활동의 정치적 대표성은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권위주의 통치형태를 지닌 제 3세계에서 의원들의 지역구활동은 일반 유권자들과 정부 관료들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다. 제3세계에서는 서구사회만큼 시민사회가 충분히 정부의 대항세력으로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의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치참여욕구를 적절한 제도적 대의장치에 의해 탄력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면 참여의 폭발로 정권에 대한 불신과 정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지역주민의 즉각적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적 대표성 개념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윤종빈, 2000). 즉 지역구활동은 국회의원에 의한 대의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지역구민원, 지역구개발, 정부감시·견제, 입법활동, 지속적인 주민과의 접촉 등이 지역구활동에 해당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윤종빈, 2002).

당 총재를 중심으로 한 중앙당의 공천권을 통한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우리 정당정치 특징이지만, 소선거구제하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직접 선거를 통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중앙당의 통제와는 별도로 선거구민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독자적인 지지기반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득표율 증가로 연결된다.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재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당선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지역구활동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 동기가 선거적 요인일지라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활동에 매진한다는 사실 자체는 지역구민의 대표성을 높여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윤종빈, 2002).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역구활동이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하여 중요한지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정치적 대표성의 개념이 과거와 달리 단순히 원내활동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민에 대한 서비스 등의 원외활동까지 포함하여 확대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이 심화 발전되어 과거와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고 있는 정치현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표출된 다양한 이익들을 집약하고 실현하기 위한 대표자들의 활동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기에 지역구대표기능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의 지역구활동은 이익표출수단이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셋째, 지역구활동에 대한 관심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참여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반유권자를 제도화된 정치과정의 틀 속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2) 대통령의 활동

우리나라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사된다.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 작용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지위와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⁶⁾ 대통령은 두 지위에서 유래하는 여러 권한과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를 근거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활동을 국가원수로서의 활동과 행정부수반으로서의 활동으로

6)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와 행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헌법에 대한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종합해보면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원수·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로 나누어지며 대통령의 행위는 그 지위에 따라 구분된다(김철수; 권영성; 허영).

나누어 살펴보면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에는 외교활동(외교과견, 신임, 접수), 조약체결행위, 선전포고·강화, 국군의 해외과견, 헌법기관구성관련행위, 긴급 명령발표, 계엄선포, 사면행위 등이 있고 행정부수반으로서의 활동에는 법률 집행, 국무회의의장으로서의 활동, 국회연설행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등이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회 및 법원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여 법령에 정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⁷⁾ 민주주의에서 입법부, 사법부와 행정부간의 상호견제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수장으로서 국회, 법원과의 견제와 조절을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고유한 권한에 비해 국가 원수로서 중요한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가의 대표로서의 외교권은 물론 강력한 국가 긴급권, 국가기관구성권, 사면권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으로 우리의 독특한 정치현실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토분단이라는 현실이 강력한 지도력을 요구했고, 권위주의적 통치가 계속되는 동안 의회 중심의 정치가 발달하지 못함으로써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갖는 제도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민주 정치발전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치 발전을 위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정진만, 2004; 오일환, 1998; 이상운 외, 1997)⁸⁾

7) 권력분립제란 정치의 작용을 입법, 행정 및 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이것을 각각 독립된 기관에 속하게 하여, 그들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원칙을 보유케 함으로써 정치권력이 절대화되는 것을 막고, 개인의 정치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을 주장하였다. 그는 권력을 장악한 자는 그것을 남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가의 권력은 분립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삼권의 분립과 상호견제로써 민중의 자유가 보장되어 전제정치의 출현이 저지되리라는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민주정치와 독재정치의 문제가 하나의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민주정치가 국민주권, 권력분립, 다수결원리 등을 존중하는데 대하여 독재정치는 1당 독재, 권력통합 등에 입각한 계급적 독재 또는 지도자의 원리를 주장한다. (이극찬(2007). 『정치학』, p.439)
또한 권력분립은 대통령제의 원형적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조정관(2004).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원형”. 『한국권력구조의 이해』)

다시 말해, 국가원수의 권한에 따른 대통령의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입법부의 견제가 미치지 않는 행위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통령제의 문제로 지적된다고 할 수 있다.

김용호(2004)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만이 통치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국회와 행정부가 똑같은 통치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국민이 행정부만을 통치기관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자 통치기관이라는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진민(2004)은 현재 한국정치에서 대통령과 국회간의 견제와 균형에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운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볼 때, 사회교과서에서 대통령의 활동이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에 치우쳐 제시되어 있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대통령만이 통치자, 통치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을 국가의 대표로서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 상의 대통령의 활동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삼권분립제도 하의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이 함께 제시되는 것이 학생들의 대통령의 활동에 대한 인식을 다양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와 신뢰도는 낮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제도적 측면이나 정치인

8) 대통령에 대한 연구는 대통령의 행위의 기반이 되는 한국의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나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강하다. 이는 이들이 성인이 된 후 정치에 대한 무관심·투표율 저하 등으로 나타나 향후 한국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 사회 전체 발전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정치의식은 성인기 이전에 거의 완성되므로 청소년기의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학생들의 정치의식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학교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교육에 대한 개선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고등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은 현실 정치의 잘못된 행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교육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이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언론매체 등을 통해 보도되는 정치인의 활동은 선거운동과 같은 식상한 활동이거나 폭력 등과 같은 부정적인 면이 시각적으로 부각된다.⁹⁾ 그렇다면 사회교과서 상에서 ‘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시각적 자료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교과서를 통해 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의 정치인의 활동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주는 것이며, 이것은 중·고등학생들이 정치인, 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9)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국회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며, 대통령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은 국회에 대한 관심도 낮으며, 평가는 부정적이며, 국회나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실제로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못해서 일수도 있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식의 부족이 그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자질향상 못지않게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이갑윤, 2005)

정치교육과 관련해서 교과서 상 정치인의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정치인의 활동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치인의 활동유형을 나누고, 교과서에서 정치인의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지 시각적 자료-삽화-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Ⅲ. 분석대상과 분석준거

1. 분석대상

분석은 7차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수록된 정치인(국회의원, 대통령)의 활동 관련 삽화를 대상으로 한다.

<표 Ⅲ-1> 분석대상 사회교과서

중학교	
중1 사회	금성, 성지, 고려, 중앙, 두산동아, 디딤돌, 동화사, 교학사(황), 교학사(차)
중2 사회	동화사, 중앙, 지학사, 고려, 성지, 교학사(황), 교학사(차)
중3 사회	금성, 디딤돌, 동화사, 고려, 중앙, 지학사, 교학사(황), 교학사(차)
고등학교	
고1 사회	대한, 천재, 지학사, 법문사, 중앙, 두산동아, 디딤돌, 교학사
정치	대한, 천재, 지학사, 법문사
경제	대한, 천재, 교학사, 두산, 법문사
사회문화	대한, 중앙, 지학사, 금성
법과 사회	교학사

1)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삽화

교과서는 학교에서 수업을 위해 사용되는 주된 교재로서, 한 사회의 가치나 이념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주는 도구이고, 교과서에 반영된 문화적 가치 체계는 학생들의 신념과 지식 그리고 행동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때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교과내용을 조직, 배열하고 있는 외적 구조로 글씨체, 배열, 삽화 등이 있다. 그 중 삽화는 교과서의 거의 전단원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삽화의 활용이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인정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삽화란 교과서의 시각자료 중 ‘사진, 그림, 도해, 만화’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사진은 카메라로 촬영하여 게재한 삽화를 말한다. 그림은 좁은 의미로 사용하여 사진으로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자연의 현상, 활동하는 모습 등을 그려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도해란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설명 상황을 설정한 것으로 그림에 기호나 설명이 사용된 것을 도해로 본다. 만화는 익살, 해학, 풍자 등의 내용을 과장법이나 생략법을 자유로이 사용하여 그린 그림으로, 단순한 컷으로 표현된 인물의 그림이나 지문과 함께 그려진 인물의 익살스런 그림, 그리고 사전에 말 주머니가 들어간 것 등을 의미한다.

2)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활동

본 연구에서는 정치인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한정하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양자 모두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국민의 대표(기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¹⁰⁾ 또한 일반적으로 정치인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국민전체의 대표자이며,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행정부수장으로서의 지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 지위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10) 위키 백과사전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이며, 국회의원의 역할은 크게 입법, 재정(예산), 국가기관구성, 국정 감시·통제 등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지역구위원의 경우 국민의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또한 현대 의회정치에서 정당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정당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회의원은 원내활동, 지역구활동, 정당활동 등을 한다.

2. 분석준거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삽화에 나타나고 있는 정치인-국회의원, 대통령-의 활동 유형 분석은 다음의 분석 준거에 의해 살펴본다.

첫째,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 내 국회의원과 정치인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는 삽화의 수를 살펴본다.

둘째, 국회의원의 활동유형과 대통령의 활동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삽화가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활동 유형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공통과정·심화선택과정별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7차 사회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국회의원, 대통령의 활동 유형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점을 제안하였다.

1) 정치인 활동에 대한 삽화구분 방법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삽화가 다양한 정치인의 활동유형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삽화가 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내용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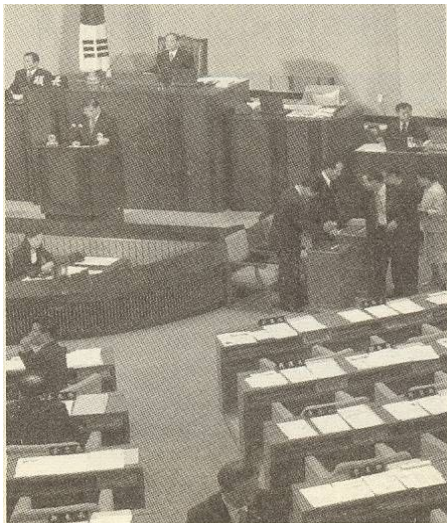
첫째, 삽화에서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삽화를 정치인의 활동으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그림 Ⅲ-1-가>과 같이 장소가 국회 본회의장임을 알 수 있는 경우, <그림 Ⅲ-1-나>와 같이 선거운동 장면에서 플랜카드 등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활동에 포함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치인을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한정하였으므로 선거 유세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삽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선거 또는 대통령선거운동이 아닌 경우에는 정치인의 활동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그림 Ⅲ-1-가> 정치(대한) 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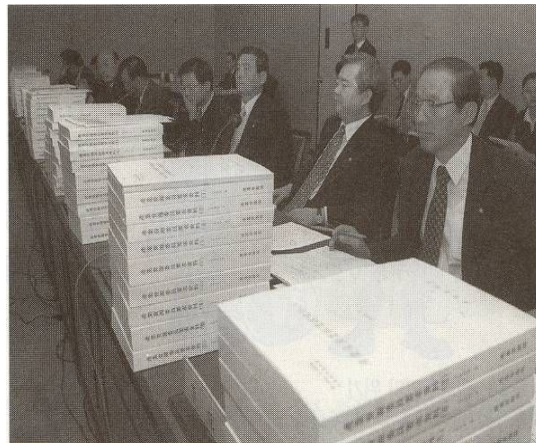
<그림 Ⅲ-1-나> 정치(법문사) 72쪽

둘째, <그림 Ⅲ-2-가>, <그림 Ⅲ-2-나> 와 같이 삽화에서 직접 국회의 원 또는 대통령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단원, 본문이나 삽화 밑에 제시되어 있는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삽화를 정치인의 활동으로 분석한다.



국회에서의 투표

국회법 제114조 제2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 ⑥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관이다.

<그림 Ⅲ-2-가> 정치(지학사) 85쪽

<그림 Ⅲ-2-나> 정치(천재) 157쪽

셋째, 정치인의 활동유형 분석이므로 <그림 Ⅲ-3-가>, <그림 Ⅲ-3-나> 과 같이 대통령취임식이나 국회개원식은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그림 III-3-가> 정치(대한) 80쪽

<그림 III-3-나> 정치(지학사) 28쪽

넷째, 삽화 속의 정치인이 한국 국회의원, 대통령인 경우에 한정하며, 외국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정치인 활동유형 구분 방법

(1) 국회의원의 활동유형 분류

i) 국회의원의 활동유형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연구를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2> 국회의원의 역할유형

	시어령	윤중빈
국회의원의 역할 ¹¹⁾	정책입안(입법)형 지역구의원형 내각열망형 의회중심형	정책입안형 지역구의원형 직업정치인 의회형 정당충성형

<표 III-3> 국회의원의 활동유형

	윤중빈	이달희	이성로	헌법
활동 ¹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내활동 -법률제정 -예산심의 -행정부건제 •지역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활동(정당활동 등) •국정관련 의정활동 •입법관련활동 •지역구관련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회의를 중심으로 한 활동 •국정감사활동 •위원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법권(40조) •예산심의·확정권(54조) •헌법기관구성권 •국정통제권한(63조)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원내활동, 원외활동으로 나뉘기도 하고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으로 나뉘기도 한다. 현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평가에 관한 연구는 입법활동과 국정감시활동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으며, 지역구활동에 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역할 및 활동은 대부분 원내 의정활동

11) 시어령의 연구를 기초로 한국에서 실시된 윤중빈의 연구(2004)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역할유형은 정책입안형, 지역구의원형, 직업정치인형, 의회형, 정당충성형으로 추출되었으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국회 내의 공식적인 의정활동과 국회 밖의 의정활동 특히, 지역구활동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12) 윤중빈(2000)은 국회의원에 의한 지역구활동의 정치적 대표성은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윤중빈(2006)은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의정활동 평가는 크게 입법활동과 국정감시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하였다. 이달희(2006)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정치활동(정당활동 등), 국정관련 의정활동, 입법관련활동, 지역구관련활동으로 나누고 있다. 이성로(2001)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원내활동과 원외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에 해당하는데 그에 따라 나눈다면 국회의원의 원내활동을 입법활동, 재정
관련활동, 국가기관구성, 국정감시통제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국회의원의 원내활동은 국회 내에서 수행하는 의정활동(입법
활동, 국정통제활동, 국가기관구성권,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대표자라는 이중
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지역구활동은 국민의 대표자이자 지역의 대표자로
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지역구활
동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중요한 활동유형이라 할 것이다. 특히 ‘아래로부
터 위로’의 정치참여는 현대 민주주의, 곧 참여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오늘날
정치과정에서 아래로부터 위로의 정치참여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원내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원외활동과
같은 정치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제도권 안으로 투입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정당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현대정치에 있어
정당은 필수적인 존재이며, 없어서는 안 될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정되고 있
다. 또한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정당에 속해있으며, 입법활동 등을 수행할 때
당론의 영향력은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점을 볼 때 국회의원의
정당관련활동 또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중요한 활동유형이라 할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윤종빈, 이달희, 이성로 등의 국회의원의 의정활
동에 관한 연구과 우리나라 헌법규정에 따른 국회의원의 역할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활동유형을 나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의 활동유형을 크게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과정
에서 활동인 선거관련 활동, 원내활동, 정당활동, 지역구활동 등 4가지로 나
누어 국회의원의 활동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III-4> 국회의원의 활동

국회의원 활동유형		활동
선거운동		선거유세, 선거합동연설 등
원내 활동	입법활동	국회본회의, 상임위원회 활동 등
	재정관련활동	예산심의·확정·결산 등
	국정기관구성 활동	헌법기관구성, 인사청문회 등
	국정통제활동	청문회, 국정조사·감사, 탄핵소추 등
정당활동		교섭단체활동, 당정활동, 전당대회 등
지역구활동		의정보고, 지역민원관련활동

ii) 국회의원의 활동유형 분석틀

이상의 살펴본 연구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의 활동유형 분석틀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III-5> 국회의원의 활동유형 분석틀

		국민공통과정		심화선택과정	
		중학교 사회	고1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사회
선거운동					
원내 활동	입법활동				
	재정(예산)관련 활동				
	국가기관 구성				
	국정감시 및 통제				
정당활동					
지역구활동					

(2) 대통령의 활동유형 분류

i) 대통령의 활동유형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더불어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다. 그러므로 대통령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은 정치인으로서의 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와 행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헌법에 대한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종합해보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은 국가원수·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로 나누어지며 대통령의 행위는 그 지위에 따라 구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의 활동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활동과 행정부수장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표 III-6> 대통령의 활동유형

대통령의 활동유형	활동
국가원수로서의 활동	외교활동(외교과견, 신임, 접수), 조약체결행위, 선전포고, 강화, 국군의 해외파견, 긴급명령발표, 사면행위.
행정부수반으로서의 활동	집행최고책임자로서의 활동, 법률집행,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국무회의의장으로서의 활동 등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보다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과서 내에서 대통령의 활동이 지나치게 국가원수로서의 활동만이 강조된다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 집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 삽화 속의 대통령의 활동도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에 치우쳐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ii) 대통령의 활동유형 분석틀

이상의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의 활동유형 분석틀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III-7> 대통령의 활동유형분석틀

	국민공통과정		심화선택과정	
	중학교 사회	고1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 사회
국가원수로서의 활동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				
선거운동				

IV. 주요 결과 및 논의

1. 정치인의 활동 삽화의 수

먼저 제 7차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서에서 정치인¹³⁾의 활동으로 분석 가능한 삽화의 수를 검토하고, 이를 사회과 교과서의 정치인의 활동에 관한 삽화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 IV-1> 정치인 활동 분석 가능한 삽화의 수 (단위: 개)

	국민공통과정		심화선택과정				소계
	중학교 사회	고1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과 사회	
국회의원의 활동	40	19	53	5	8	4	129
대통령의 활동	19	13	23	5	9	0	69
소계	59	32	76	10	17	4	198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과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 중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활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삽화는 총 198개로 중학교 사회교과서 59개(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139개(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정치교과서, 경제교과서, 사회문화교과서, 법과 사회 교과서)이다.

전체 삽화의 수로만 살펴보았을 때 고등학교 정치교과서가 가장 많은 정

13) 국회의원, 대통령

치인 활동 삽화를 담고 있다.

국민공통과정과 심화선택과정 간의 삽화 수를 살펴보면, 국민공통과정인 중학교 사회과목과 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목의 삽화수를 합해보면 국회의원 59개, 대통령 32개의 삽화를 담고 있으며 심화선택과정인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에는 국회의원 53개, 대통령 23개의 삽화를 담고 있고, 경제교과서, 사회문화교과서, 법과 사회교과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삽화를 담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활동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각 유형별 어떠한 비중을 띠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2. 정치인의 활동유형별 분석

1) 국회의원의 활동유형별 분석

<표 IV-2> 국회의원의 활동유형별 삽화의 수 (단위: 개)

	국민공통과정		심화선택과정		소계
	중학교 사회	고1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 사회	
선거운동	3	1	11	3	18
원내활동	28	16	27	14	85
정당활동	9	.	13	.	22
지역구활동	.	1	1	.	2
기타	0	1	1	.	2
					129

앞서 살펴본 정치인의 활동유형으로 분석 가능한 삽화 총 198개 중 국회

의원의 활동으로 분석 가능한 삽화는 총 129개이다. 이중 선거운동, 원내활동, 정당활동, 지역구활동 등 4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삽화 2개(기타)¹⁴⁾를 제외한 127개를 앞에서 제시한 국회의원 활동 유형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공통과정, 심화선택과정별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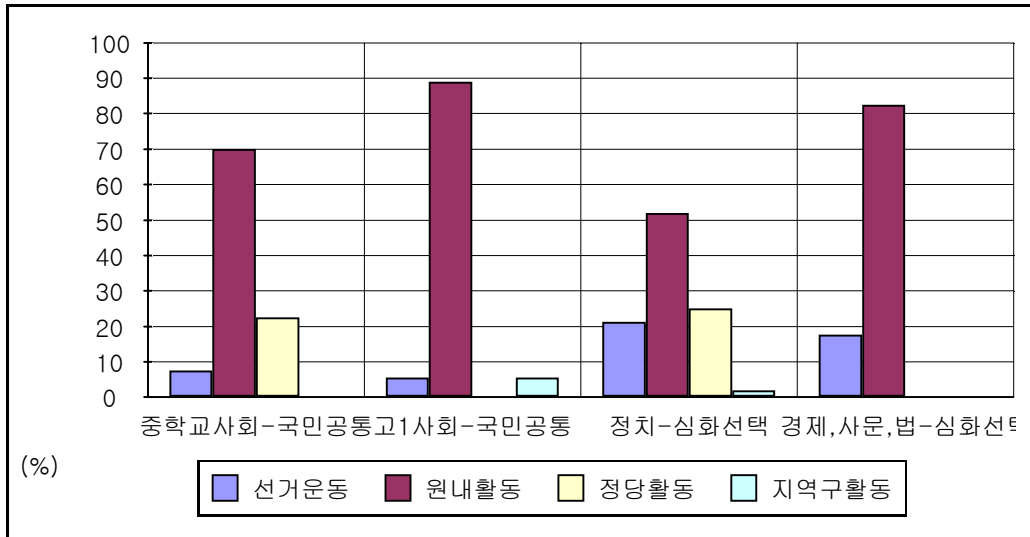
<표 IV-2-1> 국회의원의 활동유형별 삽화 비율 I II

(단위: 백분율(%),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반올림, ()는 개수)

	국민공통과정		심화선택과정		소계
	중학교 사회	고1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 사회	
선거운동	7.5 (3)	5.6 (1)	21.2 (11)	17.6 (3)	14.2 (18)
원내활동	70.0 (28)	88.9 (16)	51.9 (27)	82.4 (14)	66.9 (85)
정당활동	22.5 (9)	.	25.0 (13)	.	17.3 (22)
지역구활동	.	5.6 (1)	1.9 (1)	.	1.6 (2)
소계	(40)	(18)	(52)	(17)	(127)

14) 국회의원의 활동에 해당하는 삽화 총 129개 중 국회의원의 활동분석틀에 해당하지 않는 삽화는 2개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정치(대한) 19쪽에 3·15 부정선거 야당시위행렬 사진과 고등학교 1학년 사회(법문사) 212쪽에 야당의원 규탄시위가 이에 해당한다. 두 개의 사진 모두 야당의 시위에 관한 삽화로 정치참여활동을 크게 인습적 참여와 비인습적 참여로 나누어볼 때 비인습적 참여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정치인의 비인습적 참여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기타에 해당하는 삽화 외의 정치인의 활동에 관한 삽화는 거의 대부분 인습적 참여에 해당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부록 참조)

<그림 IV-1 > 국회의원의 활동유형 그래프 I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분석 가능한 삽화 전체의 과반수가 원내활동에 관한 삽화였다. 삽화의 비중별로 보면 원내활동, 정당활동, 선거운동관련활동, 지역구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내활동이 국회의원의 활동 중 핵심적인 활동에 해당하므로 원내활동에 관한 삽화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중학교 사회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에서의 원내활동에 관한 삽화의 비중이 70.0%, 88.9%인 것은 매우 높은 수치이다. 원내활동에 관한 삽화의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 외의 국회의원의 활동유형의 제시에 소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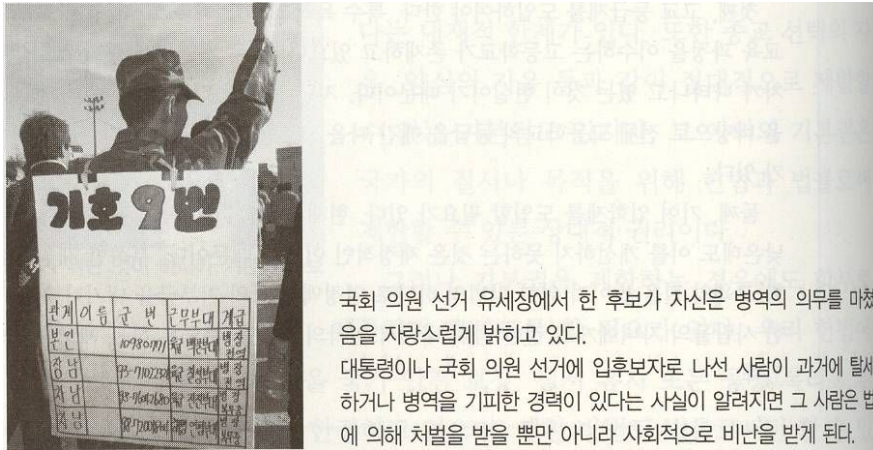
특히, 지역구활동의 경우 전체 삽화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역구활동과 같은 원외활동도 국회의원에 있어 중요한 활동이므로,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시함에 있어서 원내

활동만을 보여주는 것은 다양한 정치인의 활동을 제시해야할 교과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과목별로는 심화선택과목인 정치교과서에서 국회의원의 4가지 활동유형이 모두 제시되어 있었다. 지역구활동의 비중은 매우 낮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선거운동, 원내활동, 정당활동 등의 활동유형이 모두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는 지역구활동에 관한 삽화가 없었으며,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에서는 정당활동에 관한 삽화가 없었고, 정치외의 심화선택과목에서는 정당활동·지역구활동에 관한 삽화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7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국회의원의 활동은 원내활동(의정활동)에 치우쳐서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구활동과의 불균형이 크게 나타난다. 지역구활동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관련활동보다 더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 삽화상의 불균형적인 국회의원 활동유형 제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선거운동



<그림 IV-2> 정치(천재) 146쪽



<그림 IV-3> 중3 사회(중앙) 30쪽

<그림 IV-4> 고1 사회(중앙) 216쪽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현대 간접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정치행위 중 하나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될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게 된

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거운동은 정치인의 활동 중에 시작점이 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거운동은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하는 선거관련활동을 의미한다. 선거운동에는 선거유세, TV토론회, 합동토론회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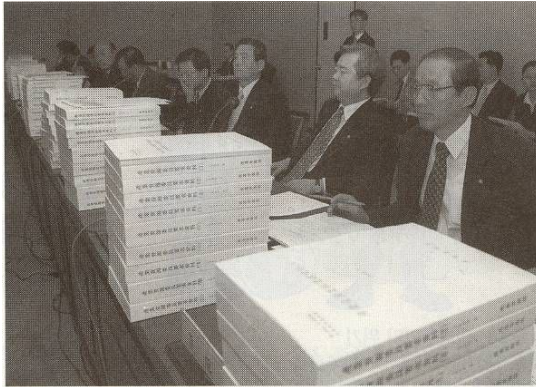
국회의원의 활동 중 선거운동관련활동은 중학교 사회, 고1 사회, 정치, 법과사회, 경제, 사회문화 교과서에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전체 삽화 가운데 선거운동관련활동에 관한 삽화는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교 사회에서 7.5%, 고등학교 1학년 사회에서 5.6%, 정치교과서에서 21.2%, 정치외의 선택과목에서 17.6%(법과 사회교과서에서 2개, 사회문화교과서에서 1개, 경제교과서에는 선거운동관련 삽화를 담고 있지 않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원내 활동



<그림 IV-5> 정치(대한) 63쪽

<그림 IV-6> 정치(지학사) 132쪽



자료 ⑥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관이다.

<그림 IV-7> 정치(천재) 157쪽

원내 활동은 주로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의 핵심적인 활동이다. 원내활동은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에 활동으로서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역할에 근거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분석한 표를 보면 원내활동은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한 전체 삽화의 66.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 70%,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에서 88.9%, 정치교과서에서 51.9%, 법과 사회, 경제, 사회문화교과서의 82.4%를 원내활동에 관한 삽화가 차지하고 있다. 모든 교과서의 과반수의 삽화가 원내활동에 관한 삽화인 것이다.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한 삽화 중에 원내활동에 관한 삽화가 약 7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그 외의 지역구활동, 정당활동 등의 삽화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중으로 교과서에 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활동 가운데 입법활동과 같은 원내활동이 높은 비중으로 교과서에 실리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권 정치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의 접촉을 하는 등 원외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정치대표성에서 지역구대표성이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볼 때 지역구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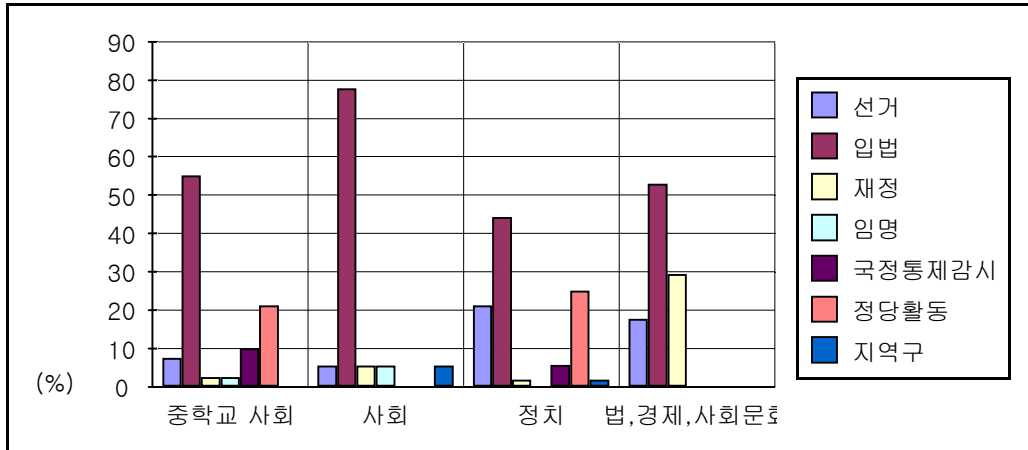
국회의원의 활동이 원내활동에 치우쳐 과도하게 교과서에 제시될 경우 학생들에게 국회의원이 활동이 국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으로만 인식하게 된다면 정치를 자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표 IV-2-2> 국회의원의 활동유형별 삽화 비율Ⅱ

(단위: 백분율(%),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반올림, ()는 개수)

		국민공통과정		심화선택과정		소계
		중학교 사회	사회	정치	경제,사회문화, 법과 사회	
선거운동		7.5 (3)	5.6 (1)	21.2 (11)	17.6 (3)	14.2 (18)
원내 활동	입법활동	55.0 (22)	77.8 (14)	44.2 (23)	52.9 (9)	53.5 (68)
	재정(예산)관련 활동	2.5 (1)	5.6 (1)	1.9 (1)	29.4 (5)	6.3 (8)
	국가기관 구성활동 (임명동의)	2.5 (1)	5.6 (1)	·	·	1.6 (2)
	국정감시 및 통제활동	10.0 (4)	·	5.8 (3)	·	5.5 (7)
정당활동		21.2 (9)	·	25.0 (13)	·	17.3 (22)
지역구활동		·	5.6 (1)	1.9 (1)	·	1.6 (2)
소계		(40)	(18)	(52)	(17)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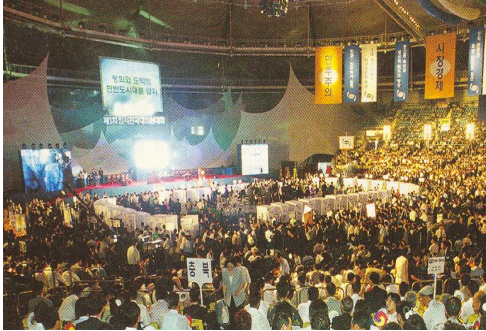
<그림 IV-8> 국회의원의 활동유형 그래프 II



원내활동은 입법활동, 재정관련활동, 국가기관구성활동, 국정감시 통제활동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원내활동 중 입법활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예산과 관련한 재정활동, 국정감시통제활동, 국가기관구성활동 등의 순으로 삽화가 제시되어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입법활동에 관련 삽화는 내용을 보면 국회본회의 사진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활동, 공청회와 같은 여론형성 활동 등의 입법활동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이 고루 제시되는 것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치인의 활동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3) 정당 활동



<그림 IV-9> 중3(금성) 23쪽

<그림 IV-10> 정치(대한) 94쪽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을 지적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정당국가화 현상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윤종빈(2004)의 연구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유형에 관한 조사에서 정당충성형이라는 한국특유의 국회의원 역할유형이 새롭게 추출될 만큼 한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속 정당이 미치는 영향은 크다.¹⁵⁾ 18대 국회의원의 약 90% 이상이 정당에 속해있으며, 상임위원회 중심의 운영되는 한국 국회에서 정당이 국회의원의 법안표결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⁶⁾.

국회의원의 정당활동에 관한 삽화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와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에 각각 22.5%, 25%의 비율로 실려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

15) 이에 반해 현재 한국 사회의 무당층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당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정당이 정치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투표 시 인물위주의 선택을 함으로서 결론적으로 정당의 영향력을 간과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민의가 왜곡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있다.

16) 동아일보가 경희대 김민전 교수(정치외교학)와 함께 지난해 18대 국회 개원 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쟁점법안 111개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 행태를 토대로 '정당충성도'를 조사한 결과, 18대 국회에서 각 당의 충성도 평균은 76.4%로 17대 국회의 67.7%보다 8.7%포인트나 높아졌다.(동아일보 2009년 12월 16일자)

서와 법과 사회 교과서, 경제교과서, 사회문화 교과서에는 없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원내활동에 정당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국민공통과정인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에 정당관련활동이 전혀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학생들에게 국회의원의 정당관련활동에 대한 인식을 미흡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4)지역구 활동



<그림 IV-11> 고1사회(대한) 195쪽



<그림 IV-12> 정치(지학) 81쪽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자 동시에 그 지역의 대표자이다. 그러므로 지역구활동과 같은 원외활동도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활동과 같은 다양한 원외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제도권 안으로 투입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한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국민과 접촉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민의를 국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치인에 대한 거리

감과 불신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공통과정인 중학교 사회교과에서 지역구활동에 대한 삽화는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중학생들에게 국회의원의 중요한 활동의 하나인 지역구활동을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민공통과정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와 심화공통과정 정치교과서에 지역구활동에 관한 삽화가 제시되고 있지만 5.6%(1개), 1.9%(1개)로 비중이 매우 낮다.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제시된 국회의원의 활동의 관한 삽화 전체 중에 단 2개가 지역구활동에 관한 삽화이다. <삽화15>를 보면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동감댐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는 국회의원의 활동 사진이며, <삽화16>은 국회의원이 지역주민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는 사진이다.

교과서에 제시되는 삽화 속의 지역구활동이 원내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구활동의 비중이 미미하여 학생들이 지역구활동에 대해 인식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지역구활동이 선거구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교과서 삽화에 지역구활동에 대한 제시는 학생들의 정치인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외활동에 대한 제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치를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며 국회나 정부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으므로 지역구 활동 등과 같은 주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의 원외활동을 교과서에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 대통령의 활동유형별 분석

앞서 살펴본 정치인의 활동유형으로 분석 가능한 삽화 총 198개 중 대통령의 활동으로 분석가능한 삽화는 총 69개이다. 앞에서 제시한 대통령 활동유형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공통과정, 심화선택과정별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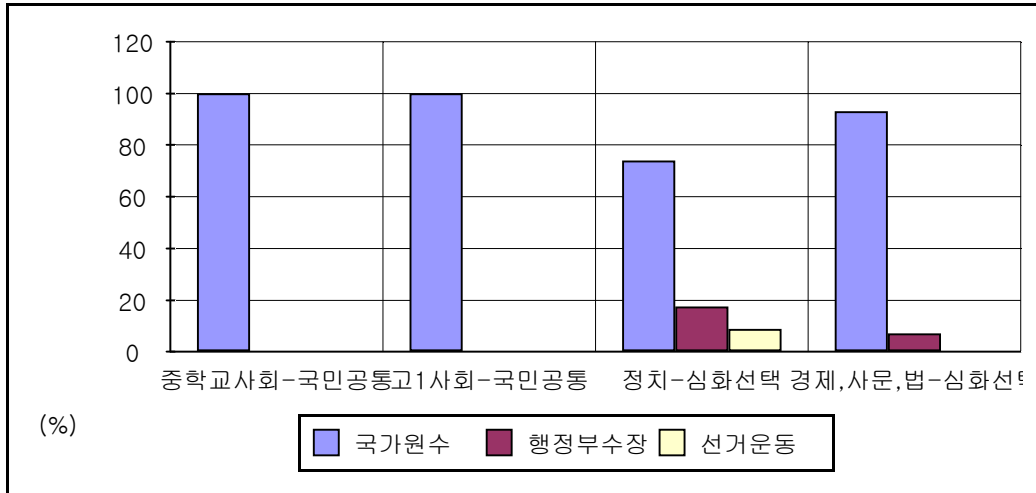
<표 IV-3> 대통령의 활동유형별 삽화 비율

(단위: 백분율(%),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반올림, ()는 개수)

	국민공통과정		심화선택과정		소계
	중학교 사회	고1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 사회	
국가원수로서의 활동	100.0 (19)	100.0 (13)	73.9 (17)	92.9 (13)	89.9 (62)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	.	.	17.4 (4)	7.1 (1)	7.2 (5)
선거운동	.	.	8.7 (2)	.	2.9 (2)
소계	(19)	(13)	(23)	(14)	(69)

대통령의 활동으로 분석가능한 삽화를 전체 삽화 중에 거의 대부분이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에 관한 삽화였다. 삽화의 비중별로 보면 국가원수로서의 활동,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 선거운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3> 대통령의 활동유형 분석 그래프



대통령의 활동은 모든 사회과 교과서에서 국가원수로서의 활동(89.9%)에 확연히 치우쳐서 제시되고 있으며, 국민공통과정인 중학교 사회교과서와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삽화에는 국가원수로서의 활동만이 제시되고 있고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정치영역의 심화선택과목인 정치교과서 삽화 중 대통령의 활동유형을 분석해보면 대한교과서, 천재교과서, 지학사 교과서에 국가원수로서의 활동과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이 제시되고 있으며 법문사의 경우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삽화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선거운동에 관한 삽화는 정치교과서에만 실려 있었으며, 나머지 교과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심화선택과정 중 법과 사회교과서, 경제교과서 삽화에도 국가원수로서의 활동만이 제시되고 있으며, 사회문화교과서 중 대한교과서에만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삽화가 1개 제시되고 있다.

교과서에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에 관한 삽화에 과도하게 치우쳐서 제시되는 것은 대통령에게 국가 대표의 이미지만을 학생들에게 강하게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국회와 동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행정을 이끌어가는 수장이기도 하다.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은 대부분 국회의 견제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만 주로 교과서에 제시된다면 학생들은 대통령을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가 아니라 우위에 있는 통치자로서만 인식될 우려가 있다.¹⁷⁾ 학생들에게 이러한 인식이 고착화된다면 한국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라는 한국 정치의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발전을 이루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17) 김용호(2004)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만이 통치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국회와 행정부가 똑같은 통치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국민이 행정부만을 통치기관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국정운영의 동반자이자 통치기관이라는 인식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1) 국가원수로서의 활동



자료 ①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역사상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

<그림 IV-14> 정치(천재) 163쪽 <그림 IV-15> 중3사회(디딤돌) 199쪽

제 7차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대통령의 활동의 89.9%는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 국민공통과정인 중학교 사회교과서와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삽화에는 국가원수로서의 활동만 100% 제시되고 있다. 심화선택과정이 정치교과서에는 73.9%, 정치교과서 외 심화선택과목에는 92.9%가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에 관한 삽화였다.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에는 외교활동(외교파견, 신임, 접수), 조약체결행위, 선전포고, 강화, 국군의 해외파견, 헌법기관구성관련행위, 국군통수, 사면행위, 긴급명령발표 등이 있다. 교과서에서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 삽화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긴급명령발표에 관한 삽화(정치(지학사)140쪽)외에 외교사절 신임접수, 남북정상회담, APEC정상회담, ASEM정상회담, 조약체결 등 대부분 외교활동에 관한 삽화였다.

(2)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



<그림 IV-13> 정치(대한)27쪽-국무회의



국회연설

<그림 IV-14> 정치(천재) 150쪽



자료 ④ 국무 회의
국무 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그림 IV-15> 정치(천재) 161쪽

제 7차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대통령의 활동의 7.2%는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 국민공통과정에 해당하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와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에는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대통령의 활동에 관한 삽화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심화선택과목인 정치교과서에 17.4%(4개), 사회문화 교과서에 1개가 제시되고 있다.

정치교과서 삽화에 제시된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은 구체적으로 국무회의, 국회연설,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참석이며, 사회문화 교과서 삽화에 제시된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은 박정희 대통령의 주민등록증제도 시범행위이다.

(3) 선거운동관련활동

대통령의 선거운동관련활동에 관한 삽화는 제 7차 교육과정 사회과 심화선택과정 중 정치교과서에만 8.7%의 비중으로 제시되고 있다.



텔레비전 토론회
텔레비전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그림 IV-16> 정치(지학사) 76쪽

<그림 IV-17> 정치(법문사) 81쪽

V. 결론 및 제언

1. 분석결과의 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삽화의 정치인-국회의원, 대통령-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정치인의 활동 삽화의 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삽화의 수는 총 198개로 중학교 사회교과서 59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139개다. 과목별로 보면 정치교과서에 가장 많은 정치인의 활동 삽화를 담고 있었다. 총 198개의 삽화 중 129개의 삽화가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한 삽화였고 69개가 대통령의 활동에 관한 삽화였다. 129개의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한 삽화 중 2개는 이 연구에서 나눈 국회의원의 활동유형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하고 127개를 분석하였다.

둘째,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국회의원의 활동에 해당하는 삽화를 국회의원의 활동유형분류표에 따라 각 유형별로 조사하고 그 비율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한 삽화 중 원내활동 66.9%, 정당활동 17.2%, 선거운동 14.2%, 지역구활동 1.6%로 원내활동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지역구활동의 경우 그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민공통과정과 심화선택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활동유형은 심화선택과정인 정치교과서에서만 원내활동(51.9%), 선거운동(21.2%), 정당활동(25%), 지역구활동(1.9%)에 해당하는 삽화가 모두 제시되어 있었다. 또한 각 활동유형 간의 비중의 차이도 가장 적었다. 국민공통과정인 중학교 사회교과서와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에서는 원내활동의 비

중이 각각 70%, 88.9%로 높아서 상대적으로 다른 활동의 비중이 낮아 활동 간의 비중 차이가 컸다. 국민공통과정과 심화선택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지역구활동에 관한 비중은 매우 낮았으며,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는 지역구활동에 관한 삽화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셋째,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대통령의 활동에 해당하는 삽화를 대통령의 활동유형분류표에 따라 각 유형별로 조사하고 그 비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의 활동에 관한 삽화 전체 중 국가원수로서의 활동 89.9%,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 7.2%, 선거운동 2.9%로 모든 사회교과서에서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에 확연히 치우쳐서 제시되고 있었다. 국민공통과정과 심화선택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심화선택과정인 정치교과서에서 국가원수로서의 활동,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 선거운동 3가지 유형이 모두 제시되어 있었으나, 국민공통과정인 중학교 사회교과서와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삽화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활동만이 100% 제시되고 있고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과 선거운동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았다.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에 관한 삽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외교관련 활동임을 알 수 있었다.

중·고등학생들이 정치인, 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통해 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정치인의 활동에 관한 삽화의 개선이 요구된다.

2. 시사점 및 제언

한국에서 정치·정치인에 대한 무관심과 높은 불신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20, 30대와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들도 정치에 무관심하며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이다. 이는 선거와 같은 정치참여의 저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미래 한국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중·고등학생들의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기 정치적 태도 형성에 있어서 학교교육의 역할은 절대적이며 그 중에서도 학교교육에서 주된 교재인 교과서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 속에 등장하는 정치인의 활동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정치인의 활동에 관한 삽화를 정치인의 활동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이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한 분석결과를 보면, 삽화에 제시된 국회의원의 활동은 원내활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구활동과 같은 원외활동에 대한 제시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국회의원의 주요 역할이 원내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일임을 생각해보았을 때 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국회의원의 활동이 원내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일견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삽화 내에 원내활동에 집중되어 국회의원의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지역구활동과 같은 원외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라는 점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역구활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와 같이 권력이

중앙당에 집중되어 있고,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력이 약하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도정치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구활동의 중요성은 커진다. 지역구활동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참여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반유권자를 제도권 정치의 틀 속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활동이다. 지역구활동에 대한 선거구민들의 기대와 만족은 국회의원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조사 결과를 볼 때, 지금처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높은 현실에서 국회의원의 지역구활동은 정치인에 대한 호감과 정치참여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의 정치적 대표성에 있어서 지역구활동이 차지하는 정치적 대표성의 본질에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지역구활동을 국회의원 개인이 재선이 되기 위한 보여주기식 활동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지역구활동의 동기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활동에 노력한다는 사실 자체는 지역구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대표성을 높여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것이다. 법률의 제정은 곧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법률을 제정하는데 있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그러므로 지역주민과의 접촉과 소통을 하는 것 역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지역구활동은 우리나라 정치상황 하에서 매우 중요한 국회의원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교과서 삽화 내에 지역구활동이 극히 낮은 비중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지역구활동에 대한 인식이 낮고 그 중요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정치의 모습이 교과서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회는 국정을 논하는 역할만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교과서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사회교과서 삽화에서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시할 때 지역구활동의 비중을 늘려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삽화 속의 정치인의 활동이 일반국민들과 유리된 중앙권력 내에서의 활동으로만 비춰진다면 중·고등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을 개선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삽화에 나타난 국회의원의 활동이 지역구활동에 치우쳐서 제시된 것은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본문내용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서술은 대부분 원내활동에 관한 것이었다. 지역구활동의 중요성을 생각해보았을 때, 삽화의 제시뿐만 아니라 사회교과서 서술에 있어서도 지역구활동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통령에 활동에 관한 분석결과를 보면, 국민공통과정인 중학교 사회교과서와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대통령의 활동은 100%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이었다. 심화공통과정에서도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의 정치인식·정치현실을 반영할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받는다.

국가원수로서의 활동 가운데 국회의 견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활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 국민들은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을 대통령의 활동의 전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을 국회의 동반자로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우위에 선 통치자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잘못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대통령만을 통치자로 인식

하지 않도록 국가원수로서의 활동과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을 모두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교과서 내에 국가원수로서의 활동과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의 비중이 기계적으로 일대일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의 대통령의 활동이 전혀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만으로 인식하는 현실의 잘못된 인식이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의 대통령의 활동(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이 제시되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사회교과서에서 정치인의 활동에 관한 삽화를 어떻게 수정·보완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았다.

첫째,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한 삽화에서 원내활동에 관한 삽화의 비중을 줄이고 그 외에 지역구활동 등과 같은 원외활동 등 다양한 국회의원의 활동의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공통과정인 중학교 사회교과서와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에서 원내활동의 비중을 줄이고 다양한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의 활동의 대부분이 국회 내의 활동에 국한되어 제시됨으로서 학생들이 정치를 자신과는 거리가 먼 문제로 인식하게 될 우려가 있다. 국민의 여론 수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국민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인을 가깝게 느끼고 정치가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인 삽화의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제시된 대통령의 활동에 관한 삽화에서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에 관한 삽화의 비중을 줄이고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삽화의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공통과정에서 행정부수장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삽화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을 보완해야 할 것

이다.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은 국회의 견제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활동만이 교과서 삽화에 제시된다면 학생들은 대통령을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가 아니라 우위에 있는 통치자로서만 또는 국가의 대표로서만 인식할 우려가 있다.

현대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의견, 이해관계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갈등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고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정치인이다. 그러므로 미래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할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정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를 바탕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우철(1979). 교과서 평가기준: 교과서 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강광철(2007). 고등학생의 정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조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권영성(2009).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광웅·김학수·박찬욱(1991). 『한국의 의회정치』. 서울: 박영사.
- 김광웅·방은형(2001). 『한국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형성요인』. 서울: 집문당.
- 김도중(2004). 한국정치와 정치불신. 사회과학논총, Vol.13 No.2, pp.81-96.
- 김민영(2007). 부산지역 고등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솔(2005). 정치참여교육활성화에 대한 연구: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에 대한 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숙자(2002). 중학생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순규 외(2004). 『정치학의 이해』. 서울: 박영사.
- 김영현(2008). 고등학생 정치정향 조사를 통해 본 정치교육의 현황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유남(2002). 『의회정치론』. 서울: 삼영사.
- 김중환(2007). 고등학생 학생들의 선거의식조사 연구: 부천시 고등학생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지연(1999). 제 6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교과서 체제 분석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김창언(2005). 청소년의 정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철수(2008). 『헌법학』. 서울: 박영사.
- 김형준(2008). 한국 선거의 투표율 하락 추이와 원인 고찰.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8 No.1, pp.93-122 .
- 박병석(1996). 정치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한국사회과학논총, Vol.- No.6, pp.239-263.
- 박제신(2003). 한국대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주영(2008). 고등학교 사회과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찬표(2002).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 서울: 오름.
- 박혜원(2007). 중·고등학생의 정치의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배한동(2001). 『한국대학생의 정치의식』. 서울: 집문당.
- 백종태(2002). 고등학생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송광태(1991). 국회의원의 지역구대표기능에 대한 실증연구. 중앙행정논집, Vol.5 No.2, pp.211-235.
- 송수정(2001). 고등학생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양동훈(1999).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들에 대한 재검토. 한국정치학회.
- 오일환(1998). 한국대통령제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 공공정책연구 Vo.- No.4, pp.53-77.
- 유명철(1998). 선거 참여를 위한 교실에서의 유권자 교육. 정치정보연구 Vol.1 No.1, 217-253.
- 유석렬(1986).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한국정치교육의 방향. 한국정치학회보,

Vol.20 No.2, 191-205.

- 유수경(2007).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여성의 정치활동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윤미경(2007). 고등학생 민주의식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윤중빈(2000). 한국 국회의원의 지역구활동 정도의 결정원인분석.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4, pp.145-163.
- 윤중빈(2000). 한국 국회의원의 지역구활동 정도의 결정원인분석.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4, pp.145-163.
- 윤중빈(2002). 16대 총선에 나타난 현직의원의 득표율증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4, pp.129-146.
- 윤중빈(2002). 국회의원과 선거구민의 관계연구: 현직의원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4, pp. 177-192.
- 윤중빈(2004). 16대 국회의원 역할 유형과 지역구활동.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5, pp.177-196.
- 윤중빈(2006).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평가통합 모형 연구. 의정연구, Vol.22 No.-, pp.31-52.
- 이갑윤(2005).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서울: 국회운영위원회.
- 이권우(2000). 수도권지역 고등학생들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조사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극찬(2007). 『정치학』. 서울: 법문사.
- 이달희(2005). 정책중심 국회의 성공 가능성 진단과 처방. 의정연구, Vol.20 No.-, pp.197-231.
- 이민주(2007). 예술계 고등학생들이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보영(2005). 중학생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논문.

- 이상윤 외(1997). 한국대통령제의 문제점에 관한 종합토론요지. 동아법학, Vol.- No.23, pp.79-110.
- 이성로(2001).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의 결정요인. 국가정책논집, Vol.15 No.1, pp.191-208.
- 이승철(2002). 초등사회과 교과서 삽화자료분석: 7차 교육과정의 3, 4학년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양우(2005). 고등학생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완범(1996). 사회과 교육과정의 민주주의와 정치참여. 연세교육연구, Vol. 9 No.1, pp.79-96.
- 이진아(2007). 중·고등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회화 매체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춘수(2003). 정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Vol.35 No.2, pp.119-152.
- 장영수(2008).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Vol.9 No.1, pp.173-193.
- 정규열(1998). 고등학교 학생들의 민주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정진민(2004).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한국정당학회보, Vol.3 No.1, pp.279-304.
- 정태환(2005). 인터넷 사용이 고등학생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조인희·정경희·이호영(2008). 정치적 태도가 정치적 신뢰와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10 No.-, pp.175-207.
- 주미영 외(2009). 『대통령제와 정치적 메커티즘』. 서울: 명인문화사.

- 진영재(2004).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사.
- 최진(2008). 사회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시민사회단체 활동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최호택·류상일(2007). 대전지역 청소년의 정치의식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5 No.1, pp.751-754.
- 허영(2005).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 한은정(2007). 국회의원 업무활동의 특성과 활동기록의 관리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논문.
- 홍득표 외(2007). 『정치교과서 개선방안연구』.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육인적자원부.

2003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건, 사회참여, 소득과 소비)

2004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부문)

ABSTRACT

Analysis on Activity of Politician in Illustration in Social Studies Textbook for Middle & High schools

Choi, Eun-Yeong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the activity types of politicians in illustrations of social studies textbooks for middle and high schools. Most Korean citizens are generally negative towards politics, such as regarding politics as something irrelevant to themselves or being cynical towards i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o, are generally uninterested towards politics, possessing a generally negative recognition towards politics and politicians. High school students' lack of confidence towards politics is somewhat fixated, leading to a high probability for them to grow into citizens uninterested and cynical towards politics, which would ultimately become an obstacle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politics. To reduce the level of negative perception towards politician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objective school education towards politicians.

The reasons why curren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ave a low level of interest and trust towards politics and politicians can be found in several forms, including the immoral actions of politicians and the

concentrated media reports on such actions. Then, it is essential to contemplate how politicians are portrayed in politics education conducted at schools. This is because if politicians' activities introduced in textbooks are presented intensively on specific activities, this will lead to the students developing awareness towards politicians regarding only such specific activities.

Therefore, based on such problem awareness, the activity types of politicians (National Assembly members, President) depicted in illustrations of social studies and politics textbooks for the 7th educational curriculum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to derive the key study results as follows.

Firstly, as a result of looking into the activity type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 high proportion of illustrations were relevant to their in-House activities. In-House activities constituted for 66.9% of illustrations, with it constituting 70.0% and 88.9% respectively in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and high school (10th grade) social studies textbooks. Other activity types were negligently portrayed. As an example, district were portrayed with the lowest rate of gravity. Related illustrations in high school(10th grade) social studies and politics textbooks constituted for 5.9% and 1.9% respectively, did not appear in other textbooks.

Secondly, as a result of looking into the activity types of the President, all social studies textbooks were evidently portraying the President largely proportionate to presidential activities as a national chief. In particular,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and high school (10th grade) social studies textbooks, the common education course, presented

only national chief activities, while entirely neglecting administrative chief activities.

The implications obtainable through the abov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llustrations of activity type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were overall focused on in-House activities, which could refrain students from becoming aware of out-House activities, such as district activities. Therefore, social studies textbooks must endeavor to present a diversity of illustrations on the activity types of Assembly members, and be improved not to overly concentrate on specific activities.

Secondly, illustrations on the activity types of the President are overly focused on the presidential activities as a national chief. Moreover, it entirely neglects activities as an administrative chief in the common education course. Illustrations on presidential activities are presented overly on national chief activities, which may result in students not recognizing the President as an administrative chief with equal st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only as an image representing a nation. Therefore, textbooks must be improved by presenting presidential activities as an administrative chief in their illustrations.

부록: 기타에 해당하는 삽화



자료 Ⅵ-2 야당 의원들이 교섭 단체 구성을 위하여 당적을 옮긴 여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1 사회 (법문사) 212 - 야당의원 시위



3·15 부정 선거(1960)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야당의 시위 행렬이 종로를 지나고 있다.

정치(지학) 19 - 야당의 시위행렬